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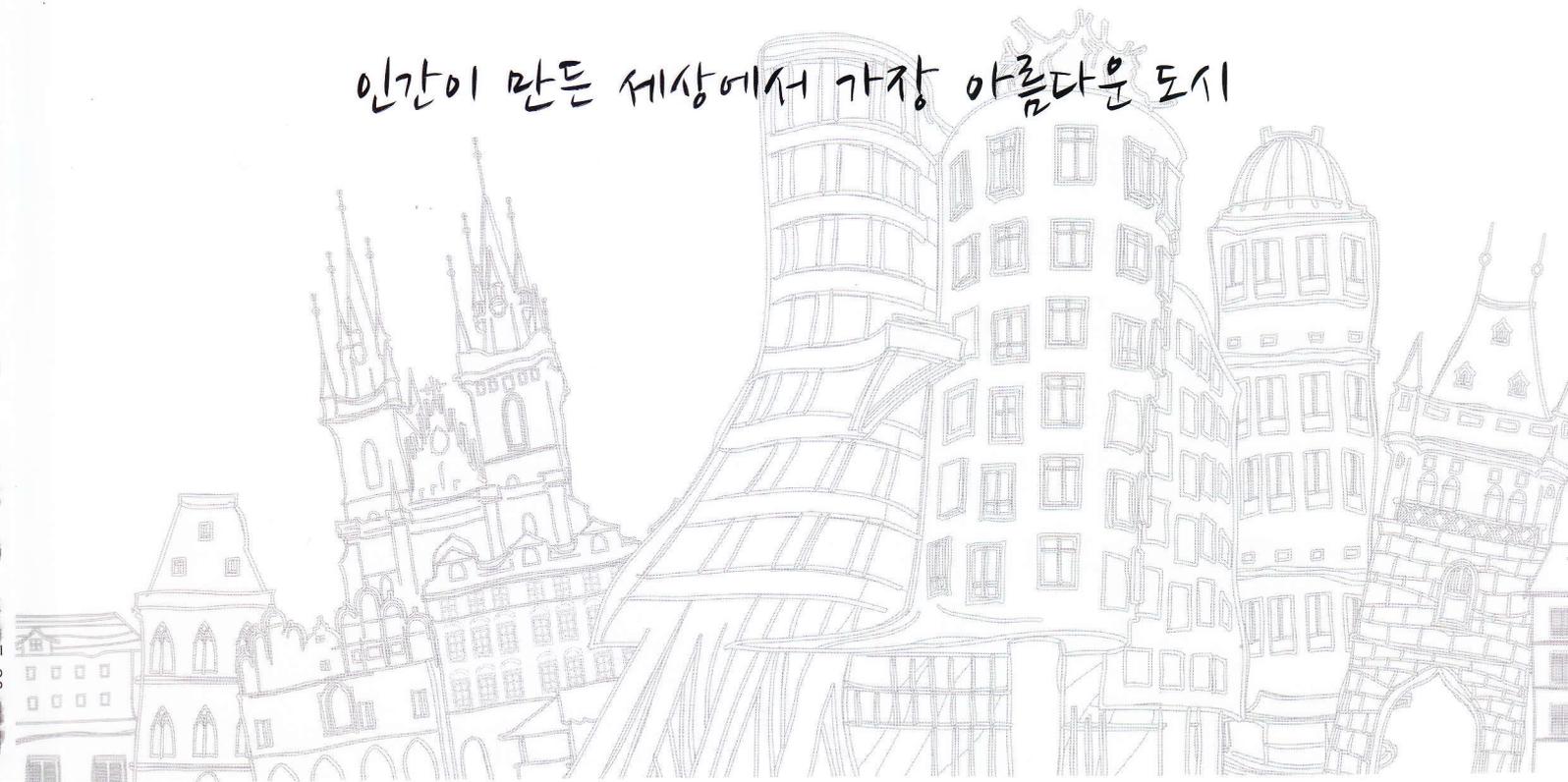


JUNE 2011

I love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 -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

“체코 서적을 통해 프라하를 발견하세요!”

올해 3월, 서울 소재 체코정보문화원에서는 체코 작가들의 프라하에 대한 문학 선집 한국어판의 출판회가 열렸다. 본 선집 '프라하 -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에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바 있는 야로슬라브 하섹(Jaroslav Hašek), 카렐차펙(Karel Čapek),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구스타프 메이링크(Gustav Meyrink)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기 작가인 요제프 슈코레츠키(Josef Škvorecký), 이반 클리마(Ivan Klíma)와 현대 작가인 미하엘 아이바자(Michal Ajvaz)와 야힘 토폴(Jáchym Topol) 까지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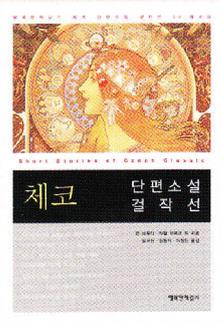
사진의 피사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라하의 건물 중 하나인 구 시청을 그대로 본떠 지어진 흥대 캐슬 프라하(www.castlepraha.co.kr)에서, 본 선집을 위해 고은 선생님께서 직접 축하해 주셨다. 이날의 축하 이후 고은 선생은 수 년 만에 백담의 도시인 프라하를 재 방문하셨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책의 세계' 라는 문학 박람회에서 고은 선생은 '그것은.....' (To je...) 이라고 하는, 체코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 출간된 시집을 소개하였다.

'프라하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 는 고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년 전 방문하신 도시를 체코 작가의 눈을 통해 다시금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본 선집은 이전에 미국에서 체코 문학 전문가인 폴 윌슨(Paul Wilson)이 출간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발행 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는 드디어 본 선집이

한국어로 출판되는 경사를 맞이하여, 한국에 소개되는 체코 문학의 최초의 선집으로서 한국 독자들에게 체코 문학을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체코 문학을 알아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 그 지없는 프라하라는 도시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출판된 수 많은 안내서와 여행기의 목록에 양질의 서적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서울 출판사 '행복한 책 읽기'(www.happyreading.net) 로서는 '프라하 -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 가 체코 문학에 관한 첫 출판물이기는 하나, 본 출판사의 번역가들이 이미 주한체코대사관 (www.mzv.cz/seoul) 과 협력하여 또 다른 체코에 관련된 두 가지 번역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이번 여름에 이미 여행자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자 할 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클래식 문학을 소개하면서, 요세프 콜라르, 안 와이스, 카렐 폴라ček, 카렐차펙 등 대문호들을 접하게 해주고, 한국인 독자와 여행자들로 하여금 100년 전 프라하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세계로 안내해 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번 여름 말에 출판될 예정인 근대와 현대 체코 공상과학 문학 선집으로 앞의 책과는 또 다른 미래의 체코를 보여줄 것이다. 2011년에 프라하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의 목록이 주어질 것이다.

체코를 방문할 때, 독자들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프란츠 카프카나 그의 책, 또는 밀란 쿤데라의 '잠을 수



국내 최초 번역, 출간되는 체코 단편소설 걸작선 이 책은 프란츠 카프카, 카렐 차펙, 밀란 쿤데라 등 몇몇 유명 작가를 제외하면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체코문학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단편소설 선집이다. 이 책에 실린 작가들 가운데 국내 독자들에게 익숙한 작가는 '로봇'이라는 단어를 발명한 카렐 차펙 정도일 것이다. 체코 문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오래전 한국에서 출간되었다가 절판된 [용감한 병사 슈베이크의 야로슬라프 하섹,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가 필명을 따라 쓴 [말라스트라나 이야기(소지구 이야기)]의 양 네루다도 알 것이다. 이들을 비롯하여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 까지, 백 년 이상에 걸쳐 '유럽의 중심', 체코의 근현대문학사를 관통하는 열여섯 명의 핵심 작가들의 대표작 열아홉 편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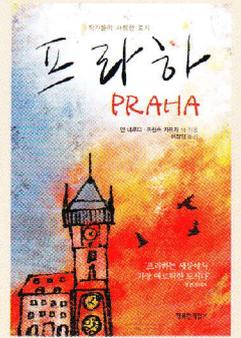
고은 시인과 함께 주한체코 야로슬라브 올샤, jr. 대사가 출판기념회에서 기념촬영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외에도 최근에 출판된 여러 체코 작가의 책도 함께 즐겨볼 수 있을 것이다. 체코 삽화가이면서 작가인 페테르시스는 한국에서는 그의 마들렌카(Madlenka)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데, 최근 그의 출판작으로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세 개의 황금열쇠'가 있다. 이것은 프라하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문학과 예술적으로 묘사해 놓은 책이다. 또한 20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체코 작가인 카렐차펙이 이미 3작품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다. 30년대 정치적 이유로 노벨상을 놓친 그의 세 한국어판 작품은 다음과 같다. 열린책 출판사에서 나온 '도롱뇽과의 전쟁', zmanz출판사에서 나온 현실주의 소설인 '호르두발', 리젠헤출판사에서 1920년대 한국어 초판이 출판 되고 차פק이 국제 상용어가 된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R.U.R.이란 희극이 있다. 또한 현대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떠나기'라는 바츨라프 하벨의 짧은 희곡을 잊지 않길 바란다. 전 체코 대통령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희곡 작가 바츨라프 하벨은 그 한국어판 작품에서 현대 정치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결론들은 중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치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작품은 체코의 극장 아르하의 서울 방문 공연을

계기로 LG아트센터에서 출판되었다. 프라하로 여행을 떠난다면, 문학이나 희곡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행된 저명한 체코 사학자, 페트르 초르네이와 이지 오코르니가 쓴 체코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한국어판은 서강대학교 연구팀이 중앙 유럽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번역을 진행하고 다해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체코 문학의 한국 진입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9월과 10월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립극장 축제에 체코국립극단이 참여하여, 차פק의 '마크로플러스 사건'을 멀티미디어적인 방식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이 작품 외에 다른 두 희곡의 번역본이 잇따라 열린책 출판사에서 출판될 것이다. 출판사의 독자들은 수 개월 전 차팩의 '도롱뇽과의 전쟁'을 본 출판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 올해 후반에는 마르틴 하르니ček의 호러 문학 작품인 '고기'를 출판할 예정이다. 이 책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당시 공산권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체코에서는 출판되지 못하였고 캐나다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더불어 25년 전 한국에서 이미 출판된 바 있는 야로슬라브 하셱(Jaroslav Hašek)의 슈웨이크(Švejk) 병사에 관한 유머 소설의 재발행판과 체코 클래식 작가인 얀 네루다(Jan Neruda)의 단편소설, 시 선집도 향후 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년에 프라하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체코 작가의 작품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야로슬라브 올샤, jr.
주한체코공화국 대사
(www.mzv.cz/seoul)



"영광이 별까지 닿을 위대한 도시, 프라하" 체코의 진국신화에 나오는 공주 라부셰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통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프라하의 연인> 이후 낭만적인 사랑의 도시로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 프라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시인' 하벨을 선택한 체코의 수도이자, 이반 클리마의 말처럼 벨벳혁명 당시 총과 칼 대신 "조롱과 풍자, 그리고 농담을 무기로 혁명을 이루어 낸" 예술적 감성과 사상적 저력을 가진 도시이다. 바로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모은 소설집이 출간됐다. 『프라하-작가들이 사랑한 도시』는 프란츠 카프카, 얀 네루다, 카렐 차펙 등 체코의 대표 작가 열네 명이 쓴 열여섯 편의 단편들을 통해 이 위대하고 특별한 도시 프라하의 매력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